

다윗의 인구조사, 주님의 구원역사

사무엘하 24장

◆ CHECK POINTS

- 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②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 백성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 ③ 다윗이 쌓은 제단과 피의 제물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말씀은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사울 왕의 통치와 그의 죽음으로 마쳤습니다. 이어 사무엘하 말씀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사건과 왕국의 번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찬양으로 채워진 사무엘서의 결론 부분은 오늘 사무엘하 24장에 다다라 그의 통치 말기에 있었던 인구조사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며 마치게 됩니다.

◎ 다윗이 강행한 인구조사 (1-9절)

다윗과 백성을 향한 신 재앙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뜻

삼하 24:2-4
왕하 6:15,16
시 52:6-8
요 13:1,2



“다윗에게 조사 결과를 알리는 요압”
(Wood engraving, published in 1886)

다윗은 그 통치 말기에 백성 전체의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당시 국가에서 인구 조사는 1) 군대에 갈 수 있는 장정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2) 또한 국민에게 세금을 더욱 징수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과시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다윗의 인구조사가 단순히 그의 계약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함께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동일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21장 말씀은 주님께서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는 것을 허용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고 명령을 받은 요압 장군은 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지만 다윗은 다시 명하여 그를 재촉하고 거의 10개월 간 단에서 브엘세바의 영토를 조사하여 총 장정의 수 130만(이스라엘 80만, 유다 50만)을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 삼하 24:2-4**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 주시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 이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 왕하 6:15,16**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시에게 말하되 아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 시 52:6-8**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 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 요 13:1,2**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왕국이 번영할 때 다윗과 이스라엘은 교만하여졌고 다시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사람의 교만함으로 세워지지 않게 하시려 그들을 징벌하시되 지도자 다윗의 교만함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한 마음과 행위를 통해서도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늘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을 택하여 갈 수 있도록 기도로 분별하고 겸허히 역사하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 하나님의 예고된 징계 (10-17절)

다윗의 가책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심판 후 회개하는 다윗

다윗은 인구조사를 마친 후 자신의 교만을 자책하고 즉시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옛 벗과 같은 갓 선지자(삼상 22장)를 보내셔서 범죄에 대한 심판 명령을 전하고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1) 왕의 땅에 7년간 흉년이 임하는 것, 2) 왕이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 3) 왕의 땅에 3일 간 전염병이 임하는 것 중에서 사람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마지막 재앙을 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이 인구 조사한 모든 영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염병 재앙이 내리면서 7만 명의 백성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자신의 죄를 다시 뉘우칩니다.

삼하 24:10-12
 출 32:31,32
 애 3:22,23
 겔 17:24

삼하 24:10-12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 다." 다윗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다윗의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갓이 주님의 말 씀을 받았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 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출 32:31,32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애 3:22,23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겔 17:24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이제 다윗은 지난 죄를 직시하고 회개를 미루지 않는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범죄에 따른 징계라는 하나님의 순리를 막을 수 없었고 그의 선택(들)로 생긴 재앙과 교만했던 백성의 죽음은, 왕 다윗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목자 된 다윗의 기도는 1) 그동안 교만한 양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와, 2) 양된 백성에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유지하고자 했던 죄를 모두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어느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지도자의 회개는 어느 사람들과는 달라야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백성을 중보하여 대신 드린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들으셨습니다.

◎ 다윗의 제사와 재앙 그침 (18-25절)

다윗의 제사로 인해 그친 죽음의 재앙과 그리스도의 구원

삼하 24:24,25
 레 3:1,2
 롬 3:25,26
 히 9:22
 벰전 1:18,19

다윗이 회개한 후 갓 선지자는 아라우나(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여 마당과 소의 값에 해당하는 은 오십 세겔을 아라우나에게 지불하여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린 아라우나의 땅은 1)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이며, 2)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자리가 되고, 3)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로 십자가를 지시는 골고다를 가르킵니다.

다윗이 제사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의 징벌을 그치셨습니다.

삼하 24:24,25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 안 되오.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십 세겔을 주고, 그 타작 마당과 소를 샀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레 3:1,2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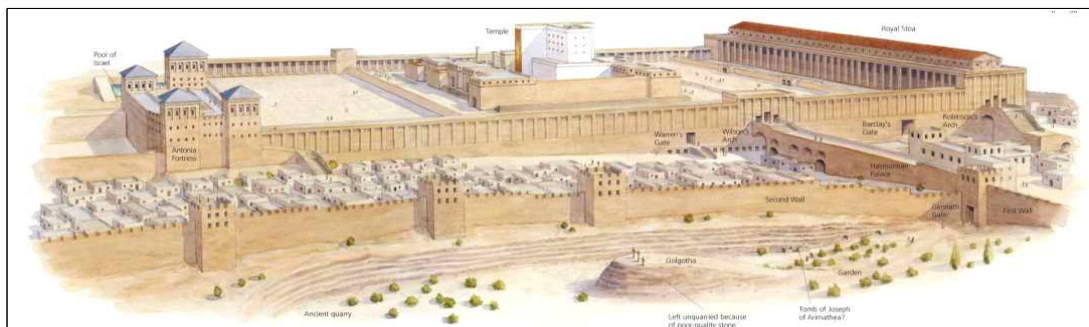
롬 3:25,26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히 9:22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벰전 1:18,19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면은 새로운 제사로 백성의 죄를 모두 사하고 죽음의 역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으로 장차 속죄의 제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새로운 시작으로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에서 비롯된 주님의 징계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와 진실된 예배를 드림으로 끝이 나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사무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복하여 죄를 범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죄악을 사하시고 결국 우리를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때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모리아산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 아래 위치한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